

# 韓國 黃染 研究

李 良 燮

I. 序 言	III. 黃 染 色
II. 黃色染料植物	1. 黃色的 文化
1. 梔子	2. 黃의 傳統染色法
2. 黃蘗	IV. 實驗染色
3. 鬱金	1. 試料 및 媒染助劑
4. 黃連	2. 色素의 抽出 및 染色
5. 紅花	V. 結果와 考察
6. 薑草	VI. 結 言
7. 槐花	

## I. 序 言

黃色은 우리나라에서도 中國에 이어 지나치게 尊重되므로 衣類에 그 使用이 禁止되어 있었으나 朝鮮朝 後期에는 皇室에서 使用하게 되었다. 後期遺物衣類中에는 特히 저고리에 鮮明한 黃色으로 染色된 것을 많이 볼 수 있으며, 百官들의 公服을 비롯하여 班家女人의 저고리, 圓衫, 唐衣에 연두색, 녹두색, 황녹두색, 수박색 등의 綠色系 衣類가 主流를 이루고 있다.<sup>1)</sup> 이들 綠色은 한 染料植物 만으로는 抽出되는 색이 아니다. 어느색 보다도 우리 주위에서 가장 容易하게 얻을 수 있으며 보다 간편하게 色素抽出이 되는 黃色에 藍色 및 기타색을 加하여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들 黃色染料는 特히 食用色素로 많이 使用되고 있으며, 좋은 藥材이므로 合成染料가 公害를 수반하는데 반하여 득이되며 藥이 되는 것이

다. 또한 植物에 內包된 色素의 複合성과 自然媒染劑의 複合成分 때문에 아름다움은 증가되나 合成染料染色의 工程上의 편리 때문에 染色文化는 그 傳統과 단절되었다.

그러므로 本 研究는 古代부터 朝鮮朝까지의 植物染料中 黃色的 代表가 되는 梔子, 黃蘗, 鬱金, 紅花, 黃連, 槐花, 薑草에 의한 純 黃色染色을 밝히기 위하여 黃色的 文化史의 背景과 技術을 文獻과 口傳調査에 의해 考察하고 傳統的方法의 染色技術을 그대로 抽出實驗하므로서 色相을 證明하여 傳統染色을 民俗藝術로 復興發展토록 하려는 것이 目的이다.

## II. 黃色染料植物

1. 梔子(*Gardenia jasminoides* Ellis  
*Gardenia florida* L. *Gardenia lucida* Roxb)<sup>2)</sup>

꼭두서니科의 常綠落葉灌木으로서 높이 2~3m

1) 高麗大學校博物館에 保管된 色衣料遺物中 圓衫 7點, 唐衣 10點. 두루막 2點. 이 모두 綠色이며, 저고리 5점 중 녹두색이 1점, 노랑이 3점이다.

2) 鄭台鉉, 韓國動植物圖鑑 p. 1100

이다. 7월에 白色의 芳香花가 하나씩 頂生하여  
핀후 長타원형의 6~7모가 진 果實이 가을에 黃  
紅色으로 익는다. 이 果實은 藥用의 利尿劑와  
黃色染料로 사용되는 直接性染料이다. 京畿道  
以南에 野生하며 특히 南海, 巨濟, 南原, 求禮,  
施義, 濟州, 大靜<sup>3)</sup>에서 많이 產出되며 臺灣, 日  
本에 分布한다.

說文에 梔「木實可染」라 하여 梔라고도 하며  
神農本草經에 梔子라고도 하고 그의 內外古書記  
錄에 나타난 異名은 山梔子, 染梔子花, 大梔子,  
伏梔子, 芝止, 枝子, 梔子花, 山黃枝, 黃梔子,  
黃枝, 支子が 있고 養花錄에는 舊蒿花, 紅梔花  
라고 되어 있다. H. Perkin은 中國產은 *Gardenia*  
*Grandiflora*, 印度產은 *Gardenia Incida*라고 하였  
다.<sup>4)</sup>

養花錄에서는 梔子の 四美를 花色이 스스로  
腹한 것, 花香氣가 清潤한 것, 冬節에는 잎이  
다시 돋지 않는 것 열매가 黃色 물감이 되는 것  
이라고 하고 있다.<sup>5)</sup>

中國에서는 周以前부터 染料로 사용된 듯하며  
우리나라에서도 오랜 역사를 갖고 있고 1750년  
대 尙方定例에 의하면 朝鮮朝에서는 黃色染料에  
主로 梔子が 사용된 듯하다. 死者의 삼베수의도  
梔子에 의한 黃色染이라고 전해진다.

食用色素로도 우수한 梔子是 現在도 송편같은  
쌀떡 着色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빈자떡에도 넣  
어 녹두에 黃味를 일층 增加시키기도 한다. 臺灣  
에서는 器具裝飾品の 塗料로 利用한다. 萬葉古  
今 動植物正名에는 「꽃은 禪家에서 食用으로 使  
用한다고 한다.」

梔子染은 灰汁, 酢酸, 鐵, 明礬等의 어느 媒  
染劑를 사용하여도 色相은 變化하지 않고 약간  
赤味의 黃色으로 染着되며, 木綿染色에는 赤味  
가 일층 증가된다. 그러므로 紅花와 더불어 黃

丹色을 만들어 禁黃衣의 規制에서 벗어날 수 있  
었던 것이다.

## 2. 黃蘗(*Phellodendron amurense* *Ruprecht*)<sup>6)</sup>

운향과의 落葉活葉喬木으로 높이 10m, 小葉은  
羽狀複生한다. 雌雄異家로 5~6월에 黃色花가  
圓錐花序로 頂生한다. 核果는 9~10월에 빨갱게  
익는다. 木材는 建築材, 樹皮는 코르크용으로  
果實과 함께 藥用 및 鹽基性 染料이다. 全南을  
제외한 韓國 各地에 野生하며 中國北部, 日本에  
分布한다.

황경나무, 황경피나무라고도 하는 것으로 山  
林經濟에는 黃栢이라 하고 說文에 槩, 黃木이  
라 하고 「本草經之槩木也 一名檀栢」이라 하여  
槩木이라고도 하고 檀栢이라고도 하여 異名이  
많다.

齊民要術<sup>7)</sup>에 의하면 經書에 防虫效果를 위하  
여 藥을 利用한다 하였다. 한지를 黃蘗染色하는  
技術은 오래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古書들은  
大部分이 장정에 황색이 염색되고 菱花板 紋樣  
이 은은하게 박혀있다.

和漢三才圖會에서는 黃色染과 藥用에 使用하  
고 日本의 富山地方에서는 葉을 九州地方에서는  
樹皮를 黃色染料로 한다고 하고 果實도 痰藥,  
蟲藥, 腹痛藥으로 쓴다고 한다.<sup>8)</sup>

黃蘗은 酸에도 알카리에도 變化하지 않으므로  
媒染劑 없이 煎汁만으로 染色한다. 最外皮는 色  
素보다 오물이 많으므로 除去하고 사용하는 것  
이 좋다. 黃蘗에서 얻은 黃色은 綠味의 黃色이  
므로 古來로부터 藍과의 交染으로 鮮명한 綠色  
을 만들고, 藍染의 下染으로 黃蘗을 染色하기도  
하였다.<sup>9)</sup>

3) 尙方定例 上

4) 後藤捷一, 山川隆平 染料植物譜 p. 164

5) 洪萬選 山林經濟 p. 202

6) 鄭台鉉 前揭書 p. 679

7) 6世紀 前半것으로 추측되는 中國 最古의 農業技術書

8) 後藤捷一, 山川隆平 前揭書 p. 134

9) 800年代 中國, 韓國, 日本에 共通點이 많았던 시기의 日本官選古典書인 延喜式에 의하면  
深藍色絲 一約에 藍一團小半, 黃蘗十四兩, 新二十斤  
中藍色絲 一約에 藍一團, 黃蘗十四兩, 新二十斤

### 3. 鬱金<sup>10)</sup>(*Curcuma longa*)

생강과의 多年生草로서 根莖이 根生한다. 가을에 淡黃色 꽃이 잎에서 20cm 가량의 花穗 끝에 담록색의 苞葉 사이에서 핀다. 根莖은 黃色으로서 粉末을 鬱金이라하여 直接性 黃色染料로 되는 것이다. 아시아 原産으로 우리나라 全州府 任實縣 등에서 特히 많이 産出되었다.

山林經濟에 「그 모양이 매미의배같이 생겼으며 좋은 것은 그 향이 심하지 않고 가벼우며揚해서 능히 高遠까지도 酒氣가 達하게 되므로 降神에 사용한다.」<sup>11)</sup>(鬱鬯酒)고 하였다.

乙金, 乞金이라고도 하고 鄉藥本草와 閩閩叢書에는 深黃이라 하였다. 馬來에서는 Kunyet, 아라비아에서는 Kurkum, 獨逸語로 Gilbwurzel, 英語로 Tumeric(Indian Saffron)이라 하고 英語의 古語로는 Terra merita라 한다. 1280年 마르코 포로는 中國에서 옛부터 鬱金이 貴重視되었다고 한다.

臺灣植物圖說에 「원래는 東印度에서 들어와 野生하는 것으로 한때 栽培가 盛行하였으나 요즘은 쇠퇴되고 黃色 染料를 採取하여 천과 카레를 着色한다고 하였다. 鬱金은 食用着色에 많이 사용되어 카레를 만드는데도 사용되는 香辛料이다. 特히 含有成分인 Curcumin은 强肝作用을 하는 것으로 물에 끓여 健胃劑로 사용되며 鬱金粉은 深黃散이라 하여 血淋, 尿血에 사용한다.

이 染料의 特徵은 酸을 加한 酸性溶液에서의 染色은 보다 鮮明하게 染着되나 알카리와 作用하면 赤色으로 變한다. 이 性質을 利用하여 Curcumin paper라는 알카리 試驗紙를 만든다.<sup>12)</sup> 鐵媒染으로는 褐色으로 變하고 石灰로는 호박색을 얻는다.

明나라 通雅에 「鬱金染黃也」<sup>13)</sup>라고도 있는 이 鬱金染은 梔子와 黃蘗의 中間色相으로 染出되나 日光, 세탁 堅牢度는 不良하다.

1750年代 尙方記錄에는 深黃이 礬紅入染<sup>14)</sup>에 所用되었으므로 朝鮮朝에서 붉은색의 下染으로 使用하였음을 알 수 있다.

### 4. 黃連<sup>15)</sup>(*Plugiorhegma dubium Maximowicz*)

매자나무과의 多年草로서 꽃은 잎이 커지기 전에 뿌리에서 1~2개의 잎자루보다 짧은 꽃자루가 나와 자홍색으로 4~5월에 핀다. 뿌리가 藥材와 染料가 되는 植物이다. 主根은 단단하고 수염뿌리가 많으며 地上莖은 없다. 全國 산에 野生하며 日本에 分布한다.

깽깽이풀이라고도 하는 黃連은 中國最古의 藥物書인 神農本草經에도 收載되고 今集解에도 「穴云 此進黃連者染草料也」라 하고 있다. 屬名의 Coptis는 희랍어의 Coptein(자르다)에서 由來된 것으로 잎이 가늘게 잘려진 모양때문에 명명된 것이다. 王連, 水連, 支連, 川連, 淨黃連이라고도 하는 異名이 있다.

黃連의 작은 根莖에 Berberine를 含有하여 媒染劑없이도 鮮明한 黃色으로 染色되나 色素量은 비교적 적으며 明礬媒染으로는 黃色으로 固定되고 크롬매염으로는 약간 赤味가 增加된다. 鐵媒染으로는 變色되지 않고 石灰媒染으로 綠褐色이 된다.

어린 싹을 따서는 나물을 만들었고 눈병과 설사약재로 사용하였다.

### 5. 紅花(*Carthamus tinctorius* Linne)<sup>16)</sup>

영거시과의 1年草로서 全體에 털이 없고 높이 1m 내외이다. 꽃은 紅黃色으로 7~8월에 핀다. 에집트 원산으로 各地에 재배되며 種子에서는 採油한다. 응달에서 말린 꽃은 약용으로 한다.

꽃잎에는 水溶性의 黃色色素 Saflor Yellow ( $C_{24}H_{30}O_{15}$ )와 不溶性의 赤色色素 Carthamin ( $C_{21}H_{22}O_{11}$ )의 두 種類가 含有되어 있어 黃色과

10) 李熙昇 國語大辭典 p. 1481

11) 洪萬善 前揭書: 「在處有之 形如蟬肚者佳 此物不甚香 但其氣輕揚 能致達酒氣於高遠以降神也」

12) 上村六郎萬葉染色研究 p. 297

13) 方以智 通雅 卷三十七 衣服

14) 尙方定例 年例燕賀稟單子

15) 鄭台鉉 前揭書 p. 224

16) 鄭台鉉 前揭書 p. 1200

紅色으로 染色되는 直接性染料植物이다. 學名의 *Carthamus*는 아라비아語의 染色한다는 뜻이고 *tinctorius*는 染料用이란 뜻이다. 英語의 saflower는 黃色을 意味하는 古代 orient에서 由來한 것이다. 朝鮮朝에서는 잇꽃, 利市라 하였는데 이는 그 값이 重하다는 뜻이다.<sup>17)</sup> 開國本草에는 黃藍, 紅藍, 吳藍이라 하였는데 이때의 藍은 古代에 있어서 가장 잘 알려진 染料가 藍이었으므로 染料의 意味이다.

晉時代「習鑿齒與燕王書」<sup>18)</sup>에 紅花에서 緋色과 黃色을 물들이고 胭脂를 만들어 婦人들의 化粧料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6. 葦草 (*Arthraxon hispidus* (Thunberg) MAKINO Var. *brevista* (Rgel) Hara ; 조개풀. *Arthraxon hispidus* (Thunberg) MAKINO var. *centrasiaticus* (Griseback) Honda ; 털조개풀. *Arthraxon hispidus* (Thunberg) MAKINO var. *typicus* Honda ; 민조개풀)<sup>19)</sup>

조금씩 형태의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포아풀과의 一年草로서 줄기는 下部가 누어 있으며 마디에서 수염뿌리가 났고 높이가 40~60cm이다. 녹색 자색의 꽃은 8~9월에 핀다. 풀 전체가 媒染性黃色 染料가 된다. 京畿道 및 전국에 野生하며 臺灣日本에 分布한다.

삼베풀, 물감풀이라고도 稱하며 本草綱目에 一名 荻草라고 하고 農業全書에는 王葛, 爾雅에 鹿蓐라고도 한다. 倭漢三才圖會에서는 黃草라고도 한다. 中國은 歷史가 오래되어 唐本草에 「此草以竹而細薄葉亦圓小生平澤溪澗之側荊蓐八煮以染黃色極鮮好」라 있고 證類本草에 「葦草可以染黃作金色」이라고 있다. 秦秀雄染物調査控記에 의하면 葦草를 8月 9月頃에 따서 벌에서 乾燥시킨다 하였다.

○<sub>CS</sub>

7. 槐花 (*Styphnolobium japonicum* Linne Schott)<sup>20)</sup>

콩과의 落葉闊葉 喬木으로서 잎은 羽狀複生하고 小葉은 卵形이다. 8월에 黃白色 꽃이 서로 頂生하여 피며 莢果는 10월에 익는다. 꽃과 果實은 藥用이고 꽃은 媒染性染料이다. 全南, 慶北, 忠南, 京畿, 黃海, 咸北에 野生하며 中國이 原產地로서 日本에 分布한다.

槐木, 회화나무, 왜나무라 하고 山林經濟에서는 槐花 一名 槐鵝라 하고 있다. 山海經과 周禮에 槐, 事物異名에 良木, 事物紺珠에 聲音木이라고 하고 있다.

1470年代 尙衣院, 濟用監에서는 每斤價가 京畿米 10斗였는데 1750年 尙方에서도 每斤價米 10斗로 300여년갈 變함이 없었다.<sup>21)</sup>

春秋說題辭에 槐는 木名이고 花는 染黃色을 낸다고 하였다. 經濟要錄에는 槐花로 緣色을 물들이는 것을 官錄이라 하여 漢土人이 심히 貴히 여긴다 하였다.<sup>22)</sup> Perkin도 中國本土에서 生育되는 나무로 꽃봉우리는 中國官吏의 絹製禮服을 물들이는데 사용되는 染料로서 꽃봉우리를 採取하여 少量의 白灰를 加하여 急히 건조시키는 것이 좋다고 한다.

朝鮮總督府 中央試驗所報에 「꽃은 多量의 黃色色素를 含有하고 있다. 乾燥槐花에서 約 25%의 色素를 極히 容易하게 粉末狀態로 抽出했다. 羊毛染色에서 媒染劑에 따른 色相變化는 다음과 같다. 알미늄~橙黃色, chrome~褐色, 錫媒染~黃色, 鐵媒染~灰綠色.<sup>23)</sup>

옛 中國에서는 防風材를 檢해서 주위에 심고 봉우리를 채취하여 팔았다고 한다.

本草에 「十月上己日採入藥微炒」라 하고 特히 痔疾, 血便, 痢症에 쓰며 殺蟲藥으로 쓴다. 열매는 노랑물감을 만들어 槐黃이라 하고 나무의 진으로는 槐膠라 하여 神經질 약에 쓰고 가지는

17) 李肯翊 燃藜室記述 別集 卷十三

18) 司馬遷 史記 匈奴傳 索隱記 「山下有紅藍 北方人採取其花染緋黃 將取其上英鮮者作臙脂 婦人採將用爲顏色」

19) 鄭台鉉 前揭書 p. 1383

20) 鄭台鉉 前揭書 p. 642

21) 徐榮輔 萬機要覽 財用編과 尙方定例 本院 元貢

22) 佐藤信淵 經濟要錄 卷十

23) 古城鴻一 朝鮮總督府 中央試驗所報 第二回(大正六年: 1917)

槐枝라 하여 습기로 생긴 병의 藥이 된다.

### Ⅲ. 黃染色

#### 1. 黃色의 文化

現存하고 있는 가장 오랜 천의 색이 紅花에 의한 黃色으로서 에집트의 미이라를 쓴 천이다. 이것은 1909年 英國의 Victoria大學 Hueber教授에 의하여 BC 2000年頃의 것임이 밝혀지므로서 BC 3500年頃의 埃及古墳에서도 發見된 紅花種子는 이때 주로 黃色 染料로 使用되었을 것으로 思料된다. 2000여년 前의 韓國 平壤郊外 樂浪古墳에서도 紅花種子가 出土되었다.<sup>24)</sup> 그러나 이때에는 이미 黃色보다는 紅色으로 染色되었을 것이다.

黃色은 生命의 根源인 太陽色과 一致되는 것으로서 古代 中國에서 四方을 兼한 正色이라 하고 中央色으로 尊重되었다. 間色이 아니고 五采가 加추어진 색이다. 周禮 冬官 考工記 畫續之事에 靑과 赤은 文이라 하고 赤과 白은 章이라 하고, 白과 黑은 黼라 하고, 黑과 靑은 黻이라 하였으며 五采가 加추어진 것이 繡라 하였다. 文은 東南에 屬하고, 章은 西南에 속하고, 黼는 西北에 속하고, 黻은 東北에 속하며 繡는 中央이라 하였다. 鄭氏玄<sup>25)</sup>도 上土는 玄裳, 中土는 黃裳, 下土는 雜裳, 雜裳者는 前玄, 後黃한다하고 周易에 玄黃者는 天地之雜이라 하였다. 이 天地의 玄黃은 五行說과 결부되어 黃色은 土色인고로 黃은 中央土色이라 하고 모든 間色은 下賤色이라 하였다. 朝鮮朝에서도 이를 따랐다.<sup>26)</sup>

禮記 月令에 의하면 靑, 赤(朱), 黃, 白, 黑은 正色으로서 春에 靑衣, 夏節 前半期에 朱

衣, 後半期에 黃衣, 秋에 白衣, 冬節에 黑衣(玄衣)를 입는다. 漢代 淮南子도 黃은 中央에 두고 黃龍으로 表現하였으며 後에는 이것이 各各 東西南北으로 나뉘어 東蒼龍, 西白虎, 南朱雀, 北玄武로 나타내었다. 經典에 나타낸 五臟의 색도 脾臟을 黃으로 하여 肝臟靑, 心臟赤, 肺臟白, 腎臟黑으로 하고 六腑에 있어서도 胃를 黃으로 하여 中心이 되는 것을 黃色으로 表現하고 있다 通典에 宮城門을 黃門이라 하고 釋迦牟尼의 얼굴을 黃面이라 하고 절간을 黃金宅이라 하였음이 이에서 由來한 것이다. 따라서 湖素雜記에도 「天子曰黃闈……太守曰黃堂」이라 하여 高貴의 상징이 黃이었다.

中國에서 皇帝의 禮服인 袞龍袍를 日出의 太陽色인 黃色으로 하고 黃袍라 하였다. 車服志에 의하면 隋에서 赭黃袍가 皇帝와 貴臣通服이었고 唐高祖時에도 天子의 袍衫을 赭黃袍로 定하고 一般臣民의 赭黃袍 着用을 禁하였다.<sup>27)</sup> 宋史에서도 「人孰不欲富貴一旦有以黃袍如汝之身雖欲不爲其可得乎」라 하여 黃袍가 皇帝로 뜻이 通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通雅에서 「黃白之間은 半見이라 하고 淺黃色은 緗, 黃絹은 鮮支라 하고 있으며 賈人縹緗<sup>28)</sup>」이라 하여 黃色을 尙상하였음을 엿 볼 수 있다.

高句麗에서는 大臣들이 黃色革履를 신고<sup>29)</sup> 樂工들은 黃色大袖에 紫羅帶를 띠고 無踊家들은 黃色裙襦, 黃色袴를 極長其袖로 着用하였다.<sup>30)</sup> 이때의 黃色 및 革染技術의 우수성은 日本의 仁賢天皇 때에 고려 왕이 革工을 보내어 革染技術을 배웠다<sup>31)</sup>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百濟는 古爾王 27年(260) 正月에 品位를 制度化하고 2月에는 服色을 定하였다.<sup>32)</sup> 階級別服에서 染色技術을 찾아보면 一品에서 十六品官까지의 옷은 모두 緋衣이나 帶色에 있어서는 一品

24) 明石染人 埃及 Copt 染織工藝史 p. 57

25) 朴珪壽 全集 居家雜服攷

26) 憑虛閣李氏 閨閣叢書 p. 145

27) 唐書 卷二十四 志第十四 車服

28) 方以智 前揭書 卷三十七 衣服

29) 北史 卷九十四 高句麗

30) 舊唐書 卷二十九 志第九 音樂 二 高麗樂

31) 前伊泰次 工藝志料 p. 62

32) 三國史記 卷二十四 百濟 本紀 第二 古爾王

에서 七品까지가 紫帶이고 八品이 皂帶, 九品官이 赤帶, 十品官이 靑帶, 十一品の 對德과 十二品の 文督이 黃帶, 나머지 十六品까지가 白帶를 使用하였다. 百濟는 中國과의 交易이 번번하였 으며 훌륭한 染色技術은 日本 應神天皇(270~310) 때에 革染技術을 제공하였다.

新羅는 炤智王代(479~499)에 이미 錦繡色絹을 民間人이 使用하였다<sup>33)</sup>는 記錄에서 染色術을 알 수 있다. 514年 法興王代에는 色衣가 公服制度에 적용되어 계층의 구별을 하고 있다.<sup>34)</sup> 1階로부터 5階의 大阿飡까지가 紫衣, 9階의 級飡까지가 緋衣, 11階의 奈麻까지가 靑衣, 12階의 大舍, 舍知, 吉士, 大鳥, 小鳥, 先沮知의 17階까지가 黃衣를 着用하여 黃色이 最下位였다. 그러나 眞德女王(647~653)代부터 唐儀를 따르게 되어 黃色이 王服에 적용되고 赭黃袍를 着用하게 되었다. 그 이후 黃色은 韓國에서 점차로 존중되어 興德王 9年(834) 服飾 禁制<sup>35)</sup>에 나타난 것을 보면 赭黃色은 眞骨女로부터 平人에 이르기까지 禁하고 黃色은 五頭品女로부터 平人에 이르기까지 禁止되어 가장 많이 제한을 받은 색이다. 따라서 染色術도 紅色系 위주로 발달되었음이 紅典과 蘇芳典의 染色官廳만 설치된 사실에서 알 수 있다.

高麗는 國初부터 王의 朝服에 赭黃袍를 常服에는 淡黃色인 緋袍를 着用하였다.<sup>36)</sup> 文宗 26年(1072) 2月에는 禮服을 制度化하였고 6月에는 金梯가 宋으로부터 돌아올 때 賜與品目 中에 黃鬪衫이 있다. 이는 王服色이 黃色임을 國內外에서 알고 있었음이다. 또한 毅宗朝(1147, 1170)에

는 王太子 臨軒發册時에 赭黃袍를 着用하고 燃燈小會에는 梔衣로 입었다.<sup>37)</sup> 또한 1275년 忠烈王이 元으로부터 돌아와 王으로 即位할 때 黃袍를 着用하였다.<sup>38)</sup> 또한 忠烈王 24年(1298)에 王이 箋을 받들어 「光文宣德太上王」이라는 호를 올리는 자리에 王은 紫袍요, 太上王은 黃袍로 着用하였다.<sup>39)</sup> 忠烈王 27年(1301) 5月에는 服色을 芝黃으로 赭袍를 대신하고 後에 芝黃은 黃袍로 다시 着用케 되었다.<sup>40)</sup> 禡王 13年(1387) 6月에는 明制에 따라 冠服을 皂衣에서 黃衣로 着用토록 改正하였다. 이렇게 高麗에 있어 黃色은 國初부터 國末까지 王室의 상징적 색이 되었다. 그外 公卿大夫女로부터 貴婦女, 庶民女, 遊女에 이르기까지 겨울에는 濃淡의 黃裳을 着用하였다.<sup>41)</sup> 그외 三重和尚大師服에 紫黃貼廂의 福田袈裟를 着用하였다.<sup>42)</sup> 阿闍黎大德服은 短袖編衫에 壤色 挂衣와 黃裳을 하였으므로 黃色은 王服以外 특수직 및 庶民에 이르기까지 制限없이 着用할 수 있었던 듯하다.

朝鮮王朝는 初期에는 高麗末에 改正한 服制를 그대로 襲用하여 太祖도 初에 王服에 黃色을 使用하였다.<sup>43)</sup> 1397년에는 黃色을 中國皇帝服이라 하여 男女의 黃色 着用을 禁하므로써<sup>44)</sup> 高麗傳來의 습속을 바꾸려 한 듯하다. 1399년에는 黃色衣의 禁止를 尊卑와 上下 章別을 세우기 위함이라 하였다.<sup>45)</sup>

太宗代에 가서 黃禁制度는 강화되어 黃色은 中國皇帝服이라 하여 一般使用을 禁함은 물론 王自身도 着用치 않았으며 심지어는 太宗이 앉은 黃色褥마저 바꿔야 했다.<sup>46)</sup> 太宗朝의 黃色禁

33) 金富軾 三國史記 卷三 新羅 本紀 第三 炤智麻立干 條

34) 金富軾 前揭書 卷三十三 雜志 第二 色服

35) 金富軾 前揭書 色服

36) 鄭麟趾 高麗史 卷二十六 輿服

37) 金東旭 李朝前期服飾研究 p. 43

38) 鄭麟趾 前揭書 世家 卷二十八 忠烈王

39) 金宗瑞 高麗史節要 忠烈王 二十四年 正月

40) 金宗瑞 前揭書 忠烈王 二十七年 五月

41) 徐兢 宣和奉使高麗圖經 卷二十 婦人, 貴婦條

42) 徐兢 前揭書 卷十八 三重和尚大師

43) 柳喜卿 韓國服飾史研究 p. 586

44) 太祖實錄 卷九 五年 六月

45) 太祖實錄 卷十四 七年 六月

46) 太宗實錄 卷三十三 十七年 六月

令은 太宗元年 4월에 黃色을 中外에 禁했다.<sup>47)</sup> 太宗 6年 7월에 다시 禁하였으며<sup>48)</sup> 8년에는 前司宰監 李震이 入京할 때 黃色袂를 女子가 갖고 있으므로 辱을 당한 事件이 있었다.<sup>49)</sup> 17년에는 禮曹에서 日本使臣이 바치는 黃色顏料를 받지 말자고 까지 하였다.<sup>50)</sup>

世宗 元年 正月에는 黃色에 가까운 朱紅도 禁하였다.<sup>51)</sup> 世宗 11년에는 大小 男女의 黃色衣服이 禁止되었다.<sup>52)</sup> 25년에는 茶割色을 없게 하면 正黃色이 된다 하고, 明使가 僧服이라 하니 사진 앞에서는 禁하되 文武官은 禁하지 말라 하였다.<sup>53)</sup> 21年 閏 7월에 宮中服飾에 사용되는 男女의 黃色衣를 禁하고 續典의 禁斷法에는 良家の 婦女, 女技, 奴婢가 路上에서 잔치에 黃色으로 물들인 옷을 입거나 新婦가 同牢日과 媿父母 처음될 때 黃色使用하는 것을 禁하였다.<sup>54)</sup> 26年 10월에는 中國에서 大小臣들이 鵝黃色 외에 입을 수 없고 僧服은 正黃色이므로 우리도 正黃色 外에 黃色을 가볍게 물들여 입는 것을 허용하자고 하였다.<sup>55)</sup> 이렇게 世宗朝에서는 黃色의 禁制는 완화되어 평상시에 官원들은 黃色襟襖를 사용하고 一般人은 黃色을 崇尚하였다.<sup>56)</sup>

成宗 7년에는 使臣近接時 黃色衣를 禁하고 朝臣服은 靑, 초록, 木홍을 사용하고 淡黃色, 靑, 검은색, 회색을 禁하였다.<sup>57)</sup> 成宗 12年 繼妃 尹氏의 糊衣는 染黃하여 登位時 親耕禮로 行하였으나 이때의 黃色은 文獻備考를 參작하여 柔色같은 黃色은 無關하다고 하였다.<sup>58)</sup>

仁祖朝(1623~1649)에 嬪宮衣樹는 中衫, 赤古

里, 短赤古里 內拱에 黃色 비단을 사용하였으며 昭顯世子の 「嘉禮都監儀軌」에서도 中衫, 赤古里 短赤古里 內拱에 黃色 비단을 사용하였다. 1642年<sup>59)</sup> 嬪宮衣樹 撥記에는 松花色 小古衣와 外小古衣가 33作이나 된다.

英祖朝에는 中宮殿과 別宮 中衫에 黃廣紗를 使用하였다.

高宗朝에는 皇帝로 號稱하게 됨에 따라 明皇帝衣色인 赭黃袍를 着用하였다.<sup>60)</sup> 따라서 皇后도 黃緋에 다홍과 藍의 색동이 달린 黃圓衫을 着用하였다.<sup>61)</sup> 王妃의 平常服은 남치마 靑색저고리, 黃衣靑裳, 緣衣紅裳 등이었다.

이에 따라 庶民女에 있어서도 黃衣靑裳과 緣衣紅裳이 着用되어 遺物로 남아 있다.

## 2. 黃의 傳統染色法

### (1) 梔子에 의한 染色

#### (가) 本草綱目法

#### ① 其實染物則赭紅色

#### (나) 延喜式<sup>62)</sup>

- ① 黃支子綾一疋, 支子一斗, 薪卅斤  
     帛一疋, 支子八升, 薪廿斤  
     絲一絢, 支子三升, 薪廿斤
- ② 淺支子綾一疋, 支子二升, 紅花小三兩  
     酢一合, 藁半圍, 薪卅斤  
     帛一疋, 支子三升, 紅花小三兩  
     酢八夕, 藁小半圍, 薪六斤  
     絲一絢, 支子七合, 紅花小一兩  
     酢五夕, 葉小半圍, 薪三斤

47) 太宗實錄 卷一 元年 四月

48) 太宗實錄 卷六年 七月

49) 太宗實錄 卷十五 八年 五月

50) 太宗實錄 卷三十三 十七年 五月

51) 世宗實錄 卷三 元年 正月

52) 世宗實錄 卷三 十一年 二月

53) 世宗實錄 卷百二 二十五 十一月

54) 世宗實錄 卷百五 二十六年 閏七月

55) 世宗實錄 卷百六 二十六年 十月

56) 李肯翊 前揭書 別集 卷十三 冠服

57) 李肯翊 前揭書 別集 卷十三 冠服

58) 成宗實錄 卷百二十五 十二年 正月

59) 壬午年 三揀擇 時

60) 尙方定例

61) 增補文獻備考 卷七十九 禮考 二十六 章服

62) 後藤捷一. 山川隆平 前揭書 p. 532

- ③ 深支子綾一疋, 紅花大十三兩, 支子一斗  
酢五合, 藁半圍, 薪卅斤  
帛一疋, 紅花大八兩, 支子七升  
酢四合, 藁半圍, 薪卅斤  
絲一絢, 紅花小一斤, 支子三升  
酢一合五夕, 藁小半圍  
薪卅斤

(다) 民家日用 廣益秘事大全法<sup>63)</sup>

梔子 꺾질도 實도 細刻하고 하룻밤 물에 담가 둔다. 잘 주무른後 布裏에 넣어 거른다. 찌거기를 除去하고 그 汁에 靛을 담근다. 하룻밤 방치한 후 다음날 잔다. 물을 먹여 안쪽을 걸어서 하여 말린다. 잘 마르면 장마에도 變色되지 않는다.

(라) 信州松本の 染色法

① 黃色을 물들인다. 粉을 한 것을 곧 물에 溶解시킨다. 열매를 쪼개서 煎出한다. 濃淡色을 내고 灰汁을 通하면 좋다.

(마) 口傳法<sup>64)</sup>

① 치자를 껍에서 實皮와 實果種子를 함께 뜨거운 물에 담가서 노란물이 우러나면 체나 천으로 받혀서 찌꺼기는 제거한 후 染液에 천을 넣고 염색한다.

(2) 黃蘗에 의한 染色

(가) 閨閣叢書法

① 비늘 같이 무늬진 것으로 큰 나무에서 벗기되 쇠붙이는 대지 말아야 한다. 한번만 깨끗이 씻어 찬물에 담가 추운 때는 며칠 후에 물이 올라난다. 물이 매끄럽고 걸어지면 물들인다.

(나) 山林經濟法

① 山中處處有之 五月六月採皮去皺麤暴乾, 鮮黃色厚者佳, 銅刃削去麤皮蜜水浸半日出取炎乾用入下部藍水炒火盛童便浸蒸

(다) 天工開物法

② 黃蘗을 물에서 煮出해서 물들인다. 靛水<sup>65)</sup>로 물들이면 鵝黃色이 되고. 豆綠色이 된다. 또

한 黃蘗水를 染色한 後藍독에 넣어 染色하면 葡萄色이 된다.

(라) 林園十六志法

- ① 黃栢煎水染靛水盖上
- ② 黃栢水染然後入靛礪

(마) 延喜式法<sup>66)</sup>

- ① 淺緣綾一疋, 藍半圍, 黃蘗二斤八兩  
帛一疋, 藍半圍, 黃蘗大二斤  
縵帛一疋, 藍半圍, 黃蘗大二斤  
絲一絢, 藍小半圍, 黃蘗大二斤
- ② 中緣綾一疋 藍六圍 黃蘗大二斤 薪九十斤  
帛一疋 藍五圍 黃蘗大一斤八兩 薪卅斤  
絲一絢 藍一圍 黃蘗大九兩 薪卅斤
- ③ 青緣帛一疋 藍四圍 黃蘗二斤 薪卅斤

(3) 鬱金에 의한 染色

(가) 閨閣叢書法

① 잘게 썰어서 물에 담가 흠뻑 불린 후 강판에 갈고 찌꺼기는 돌질구에 죄 짚어 물을 처서 고운 체에 받혀 물들인다.

(나) 機織彙篇法<sup>67)</sup>

① 鬱金粉을 물에 넣고 酢을 加하여 물 들인다. 겨울에는 湯으로 染色한다.

(4) 黃連에 의한 染色

(가) 閨閣叢書法

① 물에 담가 물이 올라나면 물들인다.

(5) 紅花에 의한 染色

(가) 閨閣叢書法

① 잇꽃을 4~5일 물에 담가두어 속까지 분거던 무명 주머니에 넣고 軟水에 빨면 黃汁이 나온다.

(6) 薑草에 의한 染色

(가) 閨閣叢書法

① 薑草를 煎汁을 내어 노란 재를<sup>68)</sup> 진하게 들인 후 이 잿물에 빨면 된다.

(나) 延喜式法

- ① 深黃綾一疋 刈安草<sup>69)</sup>大五斤 灰一斗五升

63) 浪萃市隱 萬寶鄙事記 卷四(1851年 9月)

64) 이수희(1904年生) 慶北 안동

65) 宋應星 天工開物 染色條: 靛은 靛과 混用된다. 藍葉을 물에 담가 石灰를 섞어 沈澱시킨 泥狀의 染料.

66) 綠色 만들 때 藍과 黃蘗을 染色하므로 黃色染色에는 藍을 넣지 고말 染色하면 된다.

67) 機織彙篇 卷二 黃色染方(1826)

68) 노란재는 노란 재나무를 살려 불꽃이 막 한창 될 때 시루에 담고 물을 부어 물속에 소리나게 내리기를 數回한다.

69) 刈安과 薑草와는 약간 차이가 있으나 같은 과의 식물이므로 매염제가 참고된다.



薪六十斤

帛一疋 芫安草大三斤 灰八斤 薪卅斤

絲一絢 芫安草大一斤 灰三斗 薪廿斤

② 淺黃綾一疋 芫安草大三斤八兩 灰一斗 二升 薪卅斤

帛一疋 芫安草大二斤

絲一絢 芫安草大十一兩 灰二升 薪廿斤

(다) 秦秀雄染物調査控法<sup>70)</sup>

① 8月 9月頃 八丈山野에 自生하는 藎草를 따서 벌에서 乾燥시킨다. 染色은 熱染液에서 染色後 晴天下에서 乾燥시키기를 1日 1回씩 10日間 반복한다. 이것이 第1回 下染을 끝낸 것이다. 여기에 灰의 上澄液에 被染物을 넣고 주물러 짜서 하룻밤 재운다. 第二回의 下染은 染液에 벌에서 잘 말린 被染物을 넣고 染色하여 晴天下에서 乾燥시키기를 3日 내지 5日間 반복한후 灰汁에 담가 하루 방치해 둔다. 第三回의 下染은 煮出液을 차게하여 피염물을 넣고 乾燥시키기를 二日以上 한다. 이 때에 色相의 濃度가 약하면 下染度數를 加한다. 灰汁에 담가 1日이나 2,3일 방치한 후 잘 乾燥시키고 水洗後 乾燥한다.

(7) 槐花에 의한 染色

(가) 閨閣叢書法

① 6월에 槐花가 채 다 피지 않고 막 반쯤 필 무렵 따서 찌서 말려 두었다가 물들일 때 쇠붙이는 피하고 통 노구에 볶아서 진히 달여 채운다.

노란재를 5번 즈뎌 받혀 독하게 된 것을 槐花물 染色을 한 후 넣고 잿물에서 빨면 속히 누래진다.

(나) 天工開物法

① 槐樹는 數十年이 지나서 비로서 꽃과 열매를 맺는다. 꽃봉우리가 버러지려 하고 아직 벌리지 않은 것을 槐蕊이라 한다. 이것을 緣色染에 使用하는 데는 紅花에 의해서 紅色으로 물들이는 것과 같이한다. 탄 꽃은 물로 한번 煮立하고 말리고 휘저어 餅狀으로 한다. 꽃봉우리가 벌어진 꽃은 색이 黃色이 된다. 保存하는 데는 石灰를 조금 넣어 햇빛에 바래면서 휘저어 섞어

貯藏한다.

(다) 林園十六志法

① 槐花煎水染藍漫盖淺皆用明礬

② 槐花必黃煎水染

IV. 實驗 染色

1. 試料 및 媒染助劑

實驗에 使用된 纖維는 한국산 방초(平織)이다. 모든 染料植物은 乾燥藥材를 使用하였다. 器材는 木器와 유리(Pyrex)에 軟水를 使用하였다.

媒染助劑는 良質의 明礬과 灰汁 烏梅水를 傳統的方法으로 만들어 使用하였다.

이미 古代 에집트에서 매염 염색이 시작된 매염조제는 單色性 植物染料나 多色性 植物染料이나 명반 緣礬, 鐵漿, 鐵泥, 灰汁 등이 使用된다. 灰는 湯에 浸出된 成分만이 染色에 효과가 있으며 같은 灰일지라도 原料植物의 種類에 따라서 含有成分과 그 量이 다르다.

使用된 灰는 동백나무를 不完全燃燒狀態로 하여 태워서 시루에 담고 뜨거울 때 물을 부어 튀도록 하면서 濾過시켜 使用하였다.

烏梅는 常溫水에 담가서 酸水를 抽出하여 使用하였다.

2. 色素의 抽出 및 染色

大部分의 植物染料는 湯藥材와 通하므로 使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煎汁에 의한 色素抽出을 한다. 梔子(主成分이 Crocetin)<sup>71)</sup>나 鬱金(Curcumin)과 같은 直接性染料는 色素의 抽出 및 染色이 容易하다.

黃蘗(berberine)이나 黃連(berberine)같은 鹽基性染料는 主成分이 모두 berberine으로서 黃色으로 染色되는 것이다. 특히 黃蘗과 黃連은 그 대표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다른 染料와 混合하면 沈澱을 일으킨다. 따라서 두 색을 混合할 경

70) 昭和五年(1930) 三月 奉代가 記錄한 黃八丈染色法이다. 日本 八丈에서 나는 芫安이 곧 藎草라 생각하면 참고가 된다.

71) 以後의 主成分은 吉岡常雄 前掲書에 의한 것이다.

우는 반드시 이 鹽基性染料染色은 他染色後에 해야한다. 特히 動物性 纖維에 잘 染着된다.

薑草나 槐花(Rutin)같은 媒染染料는 多色性成分植物이므로 抽出時間, 溫度, 媒染助劑에 크게 영향받고 色相이 變化된다. 따라서 多色性染料染色은 媒染法과 後處理法으로 나뉘어 發色시키나 槐花와 薑草는 後處理法을 使用하였다.

#### (1) 梔子染

(가) 梔子の 實皮와 實果種子를 함께 잘게 쪼개서 300g을 물에 불렀다가 이 물을 3l로 하여 60分間 煮沸하고 第1回 抽出液을 받은 후 다시 2l의 물을 加하여 60分間에 第2回 抽出을 한다.

(나) 染色은 1회와 2회의 抽出液을 合하고 다시 軟水를 加하여 15l의 染浴을 만든다. 100g의 靑을 溫湯에 담갔다가 乾져서 染液에 넣고 70°C를 유지시키면서 PH5에서 30分間 染色하고 水洗한다.

#### (2) 黃蘗染

(가) 細片化된 黃蘗幹皮를 물 300g에 담갔다가 여기에 軟水를 加하여 3l로 하고 60分間 煮沸하여 色素를 1回 抽出한 후 染液을 따라 내고 다시 2l의 물에서 60分間 煮沸하여 2회의 色素 抽出을 한다.

(나) 染色은 靑 100g을 물에 담가 두고 1회와 2회의 抽出液에 물을 加하여 15l의 染浴을 만든다. 이 染液에 靑을 넣고 70°C 유지시키면서 PH 7에서 30分間 染色하고 水洗한다.

#### (3) 鬱金染

(가) 鬱金 300g을 물을 잠기게 부어 10여일간 물을 갈아주며 불린다. 흠뻑 불켜진 것을 껍질을 긁어내고 강판에 갈아서 물을 부어 3l가 되게 하여 60分間 煮沸하여 第1回의 色素抽出液을 받아온 후 다시 第2回 抽出을 60分間 煮沸하여서 한 후 찌꺼기는 걸러낸다.

(나) 1.2回 抽出液으로 15l의 染浴을 만들어 100g의 靑을 넣고 PH4로하여 70°C에서 30分間 染色한 후 水洗한다.

#### (4) 黃連染

(가) 黃連의 根莖 300g을 깨끗이 물에 씻어 3l의 물에 담가서 노란색이 울어 나면 60分間 煮沸하여 第1回 抽出을 하고 染液은 받고 다시

7l의 물을 加하여 60分間 煮沸하며 第2回의 色素抽出을 한다.

(나) 第1회와 2회의 抽出液에 溫湯을 加하여 15l의 染浴을 만든다. 靑 100g을 넣어 70°C를 유지시키며 PH5에서 30分間 염색하고 水洗한 후 건조한다.

#### (5) 紅花染

(가) 紅花 300g을 물에 불쿠었다가 3l의 물에서 자루에 넣은 紅花를 常溫에서 계속 주물러 짜서 第1回 抽出을 하고 다시 3l의 물에서 같은 작업을 하여 第2回 抽出을 한 후 또다시 하기를 4회 반복한다. 5회쯤 되면 붉은 색소가 우려나오므로 붉은 색이 나오지 않았을 때 黃色色素만을 1~4회의 것을 合하여 15l 染浴으로 만들어둔다.

(나) 염색은 15l의 染液에 100g의 靑을 넣어 染色한다.

#### (6) 薑草染

(가) 300g의 薑草를 10l 물에서 60分間 煮沸하여 第1回 抽出을 한다. 다시 6l의 물에서 60分間 煮沸하여 第2回 抽出을 한다.

(나) 抽出液을 15l의 染浴으로 하여 靑 100g을 넣고 pH8에서 70°C로 하여 30分間 染色하고 水洗한다.

(다) 15l의 물에 5g의 明礬을 넣고 pH7에서 40°C로 하여 10分間 發色시킨 후 水洗한다.

#### (7) 槐花染

(가) 槐花 300g을 물에 담가 불린다. 3l의 湯에 pH4로 하여 60分間 煮沸하여 第1回 色素抽出을 한 후, 다시 같은 방법으로 第2回 抽出을 한다.

(나) 第1회와 2회의 抽出液에 湯을 加하여 15l의 染浴을 만든다. 100g의 靑을 넣어 PH6에서 70°C로 하여 30分間 염색하고 水洗한다.

(다) 發色은 물 15l에 명반 4g을 넣고 PH7에서 40°C로 하여 10分間 發色시킨 후 水洗한다.

## V. 結果와 考察

梔子 黃蘗, 鬱金 黃連, 紅花 薑草, 槐花의 材

料는 乾燥된 것을 購入하여 使用하였다.

梔子是 採取한지 3年된 것을 使用하였으나 多量의 色素가 抽出되었다. 常溫抽出과 熱湯抽出, 實皮와 實果의 種子로 분리 실험하였으나, 같은 量의 色素가 內包되었음을 그 色相에서 알 수 있었다. 絹에는 다같이 옥수수색(Light Reddish yellow 8—19—15)<sup>72)</sup>의 色相이었으며 綿에 있어서는 훨씬 赤味가 증가된 갈색(yellow orange 7—18—6)이었다.

鬱金은 methanol 抽出法과 傳統的 方法의 抽出法으로 실험한 결과 methanol 抽出보다 傳統的 方法에서 보다 많은 量의 色素가 抽出되었다. 酸을 加해도 반응은 같았으나 灰汁을 加하면 赤味가 증가하였다. 水洗後는 원상태대로 복귀되었다. 熱湯染에서 絹에는 黃色(Yellow 9—19—6)으로 나타나고 綿에는 赤味가 약간 증가되어 染色되었다.

黃蘗도 常溫抽出과 熱湯抽出로 나누어 實驗하였으나 같은 量의 色素가 抽出되었으며 本綿과 絹에는 같은 濃度로 染着되어 개나리색(Yellow (Primrose Yellow) 9—19—5)으로 나타났다.

黃連은 多年間 保管된 根莖이므로 色素의 抽出量은 良好하지 못하였으며 熱湯抽出을 하였다 灰汁媒染과 酸媒染 모두 같은 반응을 보였다. 絹은 개나리색(Yellow(Primrose Yellow)9—19—5)이었으나 綿染色의 경우는 白茄子色(Yellowish White 9—19.5—1)으로서 絹보다 染着力이 부족하였다.

紅花는 常溫染에서 木綿과 絹에 같은 色相과 明度로 染着되어 개나리색(yellow(primrose yellow) 9—19—5)에 약간 赤味가 加味된 色相이었다.

薑草는 熱湯抽出로 絹에 게자색(Dull Yellow 8.5—17.5—4)으로서 탁하게 染着되었다.

槐花는 熱湯抽出을 하였으나 色素量이 極히 少量이어서 黃色(Yellow 9—19—6)을 기대하였으나 삶은 淡색(Pale Yellow 9—19—2)으로 染色되었다.

以上の 7種染料 中 유독 槐花만은 採取時期가 가장 重要하며 특히 염료로 사용할 경우 保管은 採取 즉시 煮立하여 말려 두던가 搾어서 餅狀을

만들어 두어야 하는 보관은 필수적인 것임을 알았다.

## VI. 結 言

오랜동안 黃色만의 使用이 制限을 받았던 色은 染料植物의 購入이 容易하고 工程 또한 간편하게 鮮명한 黃色으로 染色됨이 밝혀졌다.

이 植物染料는 槐花와 같이 染材에 따라서는 適期에 採取해야 하며 黃連이나 薑草와 같이 可能한한 採取即時 使用해야 하고 媒染劑나 染色 方法에 따라 色相이 變化되기도 하며 色素抽出이 容易하지 않기도 하므로 아름답고 精確한 色의 抽出이 難問題이다. 따라서 合成染料의 出現以後 匠人들과 民家女人의 秘法 傳承은 斷絶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商品의 高級化가 要求되며 高度의 科學文明에 따른 人間的 工藝品 또한 必要로 하는 現代社會에서 民俗的 工藝價値, 歷史的 價値에 精神的 豐饒를 줄 수 있는 植物染色은 重要視되어야 한다.

한편 現代의 自動化, 高速化 生産商品에는 合成染料에 의한 多品種의 低廉한 商品 또한 必要 不可缺한 것이다. 이들 染色은 신비스런 植物染色과 더불어 兩極化로 發展시켜야 하므로 우선 조속한 染料植物의 栽培와 植物色素의 各色別 專門的 生産化가 要求된다. 이를 위하여는 巨視的인 國家의 保護가 制度化되어야 한다.

## 參 考 文 獻

- 朝鮮王朝實錄
- 尙方定例
- 經國大典(崔恒)
- 燃藜室記述(李肯翊)
- 宣化奉使高麗圖經(徐兢)
- 高麗史(鄭麟趾)
- 高麗史節要(金宗瑞)
- 三國史記(金富軾)
- 三國遺事(一然)

72) 以下の 모든 色相은 權將 韓國色名大辭典에 準한다.

- |                  |  |
|------------------|--|
| 新增東國輿地勝覽(李荇)     | 山林經濟(洪萬選)                                  |
| 閩閩叢書(憑虛閣李氏 鄭良婉譯) | 萬機要覽(徐榮輔)                                  |
| 朴珪壽全集下卷(朴珪壽)     | 林園十六志(徐有桀)                                 |
| 李朝前期服飾研究(金東旭)    | 韓國動植物圖鑑(鄭台鉉)                               |
| 增補韓國服飾史研究(金東旭)   | 韓國色名大辭典(權將)                                |
| 韓國民俗學論攷(任東權)     | 染料植物譜(後藤捷一, 山川隆平)                          |
| 韓國服飾史(石宙善)       | 天然染料研究(吉岡常雄)                               |
| 韓國服飾史研究(柳喜卿)     | 萬葉染色研究(上村六郎)                               |
| 天工開物(宋應星)        | Dyes from Plants (Robertson)               |
| 本草綱目(李時珍)        | Ancient Dyes for Modern Weavers (P.Weigle) |

**Abstract****The Study of Korean Yellow Dyeing**

Lee, Yang Sup

The color yellow was considered from ancient time to the Chosun Dynasty as the central color. Thus, this color became the royal color for the costumes in the palace. It is generally known to us that the color yellow was controlled in use both for the general public and in the royal palaces. However, in the later part of Chosun Dynasty, the color yellow was used not only for the king's costumes but also used for women's tops and for the linings of clothing.

Especially, in some of the costumes that belonged to the later period of the Chosun Dynasty, we can still see lots of bright yellow tops. Also there are many green dyed official robes and various costumes for women. It is a true fact that people could not derive the color green from the plants as they did with yellow. The only way they could make the color green was to mix indigo and yellow together.

By repeating the difficult process of making various dyes constantly during many centuries, the Korean people developed the marvelous technique of making natural color. Those plants used to make the color yellow are ; Gardenia, Phellodendron amurense, Turmeric, Coptis, Safflower, Arthra-xon hispidus, Styphnolobium japonicum.

While synthetic dye causes pollution, natural coloring by plants is as safe and useful as the color itself is lovely. Yet it is tragic to know that this traditional culture of making beautiful natural colors was cut off. There is no way to know today the traditionally correct method to derive colors from the plants. Therefore, it is our aim and challenge to find out the original way to dye and develop it and preserve it as our non-polluted folk art.

In regard to natural dyeing, we must say that is very difficult to prepare and preserve natural dyes. In the first place, people had to get the right plants at an appropriate time. Then they could not keep those plants too long. Finally, much depended upon the mordant as well as various conditions and dyeing procedures. All those things influenced greatly the quality of color, some times producing a very pretty color and other times a very dull one.

It is very appropriate that the natural dye art should be recognized and appreciated anew by Korea since it provides satisfaction to historical and folk artistic demands as well as to those of fashion conscious modern society for high quality consumption items. We propose two stages of development. The first stage is to explore native dye plants and encourage their cultivation. The second stage is to extract from the plants desirable dye which will enhance national culture.

(1980年度 文教部 學術研究助成費 支援에 의한 論文임)

〈服飾, 第四號, 1981. 2〉